

유아의 놀이 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행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Parents' Perceptions of and Implementation of Children's Right to Play

원계선¹ 현은선²

Kye Son Won¹ Eun Sun Hyun¹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basic information for parental education by investigating parent's implementation and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 to play.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58 parents who have a child in kindergarten or 1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in J city. The research tool used in this study, the Parent's Perception of and Implementation for Children's Right to Play(PPICRP), was developed by researchers. PPICRP is a 5type rating scale questionnaire which includes the selection of a space for play, play time, play mate, instrument, etc.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18.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ent's implementation for children's right to play was lower than the parent's perception of it except for the selection of play instrument.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re is a need for parent education which contains concepts and stresses the importance of play, which implement children's right to play. The unexpected result in the play instrument, the excessive organization of the play by adults, and the difference of parent's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ir children were further discussed.

¹ 제1저자(교신저자)

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mail : gswon3@hanmail.net)

² 공동저자

금호유치원장

key words child, right to play, parent's perception and implementation

I. 서론

놀이는 유아의 가장 자연적인 자기표현 수단이며(Landreth, 1991), 유아는 놀이를 통해 인지발달, 정서발달, 신체발달, 사회성 발달, 창의성 발달 등 모든 발달을 통합적으로 이룰 수 있다(이숙재, 2007; 장혜순, 2008). 이처럼 유아가 놀이함으로써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사회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유아에게 놀이 활동은 자기보호 과정이며 유아의 놀이 권리는 자기보호의 권리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Lester & Russel, 2010).

플라톤이 유아의 건강증진에 미치는 놀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놀이를 통한 학습을 강조한

이래로 루소, 페스탈로찌, 프리벨 등에 의해 놀이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강조되어 왔다(박효정, 2010). 20세기 유아의 특성에 대한 학문적 발견을 토대로 효과적인 유아교육을 위해서 놀이를 매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활동 중심의 교육활동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입증해 왔다. 신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놀이의 효과에 관한 연구(강선영, 2013; 신지연, 김정현, 정이정, 2012), 언어·인지발달에 미치는 놀이 효과에 관한 연구(김경숙, 2003; 김영희, 2005; 이영녀, 2015),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놀이의 효과에 관한 연구(김성재, 2011; 나상미, 김혜순, 2011; 박영미, 2013; 박창욱, 이성희, 2012; 송지홍, 최경란, 2015)는 놀이가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유아교육에서 놀이를 통한 학습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 현실 속에서 놀이와 학습의 관계는 항상 갈등관계에 놓인다. 유아교육의 역사 속에서도 교육학적, 철학적으로 놀이와 학습의 관계는 기계적인 학습, 학습지, 제한적 놀이 활동 중심의 학문 중심 접근과 최상의 학습 전략으로 놀이를 강조하는 전인적 접근 사이를 오간다(Zigler & Bishop-Josef, 2006). 이러한 갈등은 우리나라와 같은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고조된다. 유아교육기관이 받는 조기 학업 능력 강화에 대한 압력도 그렇거니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교육은 유아의 놀 시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우리나라 아동의 정기적인 취미활동 결핍률은 52.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김미숙 등, 2013), 반면에 일일 학습시간은 4시간 55분으로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다(김기현, 임희진, 장근영, 김혜영, 황옥경, 20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가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권고에서 아동의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보장할 것을 지적하였다(황옥경 등, 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 지침에서도 교육활동을 놀이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할 만큼 놀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구성된 교육활동이 놀이인가 아닌가를 인식하는 것은 활동 주체자의 몫이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가 활동의 놀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다수의 선행연구(원계선, 2016; 조성연, 박은혜, 2014; Howard, Jenvey, & Hill, 2006; Russo, 2009)는 유아의 놀이에 대한 인식이 교사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놀이가 학습의 매개수단의 효과를 가지려면 무 목적성, 재미, 내적 동기, 환상성 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교사, 부모 등의 성인이 아닌 실제로 놀이하는 주체자인 유아가 그렇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조기 기관교육의 확산이 유아를 형식적인 교실에 더 많은 시간 동안 붙잡아두고 놀이에는 학교 교육을 매개하는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무시한 성인 중심의 교육목표 지향적 놀이교육을 양산할 수 있다(Brooker & Woodhead, 2013)는 염려는 당연하다.

유아의 놀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순자, 김희태, 2010; 마혜린, 2013; 박은아, 2003). 이들 연구는 주로 놀이와 발달과의 관계, 즉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 교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그밖에 전통 놀이, 거친 신체 놀이 등 유아 발달적 측면에서 교육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행이 미흡한 놀이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연구(고여훈, 2009, 2013; 김순자, 김희태, 2010; 주보라, 김은심, 유지안, 2015)들이 수행되기도 하였다.

반면에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매우 드물다. 부모의 자녀 놀이 인식에 관한 초기 연구는 부모의 사회계층, 학력 변인에 따라 자녀 놀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탐구하거나(김민영, 1996; 김정선, 2000; 이옥자, 1985), 부모와 유아교사와의 인식 차이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김정원, 2012). 안숙연(2011)은 대부분 부모는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알고 있었으며, 유아에게 놀이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활동이며, 놀이가 학습활동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많은 시간을 놀이에 할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생각과 신념이 자녀를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한혜진, 2009; Goodnow & Collins, 1990)와 달리 어머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놀이 내용과 실제 허용하는 놀이는 다를 수 있다(박영애, 김리진, 2011). 김미나(2013)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 모두 자녀 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녀와의 놀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영아는 놀이를 즐기도록 허용하지만, 유아는 지식 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공통적으로는 자녀와의 놀이시간과 놀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였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자녀의 놀이시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참여 시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최근 휴 놀이에 대한 부모 인식과 실행을 연구한 최현희(2016)의 연구에서도 부모는 자녀가 휴 놀이를 즐겨워하므로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유아는 또래들과 주로 놀이를 하였으며 부모의 놀이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식과 실행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부모의 유아 놀이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대다수 부모는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김미나, 2013; 김소양, 1989; 김정선, 2000; 김정원, 2012; 김희정, 1998; 노영신, 2004; 박희숙, 2003; 신말예, 1994; 조성연, 박은혜, 2014; 최현희, 2016; 황인영, 2004).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밝혔듯이(김미나, 2013; 박영애, 김리진, 2011; 차유미, 이진희, 2015; 최현희, 2016), 부모는 인식과 달리 자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실제 제공하거나, 놀이 동반자로 함께 놀이지 않는 등 인식 정도와 실행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추측하게 한다.

한편 놀이가 인간발달에 미치는 유용성의 차원이 아니라 유아의 놀이를 기본권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주요원칙은 제공, 보호, 참여이다. 이중 제공의 원칙은 아동이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과 이를 사용할 권리로서 성명, 국적, 의료, 교육, 여가 등을 즐길 권리를 의미하며(박정은, 2014), 보호의 원칙은 유아가 위험한 요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참여의 원칙에는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조치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 아동의 실질적 참여가 배제된다면 그것은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김정래, 2002). 유니세프는 이상의 아동권리 협약의 주요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 기본권으로 유형화하였다. 생존권은 생존을 위한 적절한 생활 수준, 주거, 영양, 보건 등의 권리를 말하고, 보호권은 학대나 방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발달권은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 등을 의미한다. 참여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 여러 활동에 참여할 권리이다.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 보호, 감독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아동의 지위를 강화

해주는 권리이다(박정은, 2014).

아동권리의 4대 유형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과 실행수준을 연구한 이명순과 이은주(2013)에 따르면, 부모의 인식수준은 보호권에서 높게 나타났고 실행수준은 생존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놀이는 유아의 삶의 표현이자 생활이다(임재택, 하정연, 이소영, 2013). 유아가 발달을 촉진할 목적이 아닌 즐길 권리의 향유로써 놀이를 보장받아야 한다(이종희, 조은진, 김송이, 2009). 이때 성인의 역할은 단순히 놀잇감을 제공하는 환경 구성 정도를 넘어 유아의 놀이를 지지해 주는 사회·물리적 환경 구성에 있다. 유아의 놀이 권리는 이러한 사회·물리적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Lester & Russell, 2010). 그런데 유아의 권리 보장은 자주적인 노력이 아닌 성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수민(2011)은 아동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 인격성장의 권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아동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보호와 자율이라는 상반된 측면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은 아동이 부모의 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자율을 중시하는 입장은 아동이 관점·느낌·욕구·규정·자유와 선택을 주체적으로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과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부모나 성인의 전유물로 생각해 온 관습이 강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습으로 부모는 자녀의 일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장래 성공을 위해 유아기 사교육을 노력하게 된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실태조사에서도 부모들은 ‘학벌주의 사회’ 때문에 유아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유아기부터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과 기대가 있고(이윤진, 문무경, 김문정, 양시내, 2009) 이러한 경향 때문으로 유아의 놀이시간이 감소한다고 하겠다.

유아교육기관 취원율이 매우 높지만, 유아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소는 여전히 가정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 발달의 주요변인임을 증명하였다(남윤희, 김금주, 2013; 박혜정, 2013; 문혁준, 홍현재, 2103; 손남숙, 이숙희, 2008; 임현주, 2014; 주정호, 2014; Chudacoff, 2007; Fogle & Mendez, 2006). 특히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신념은 그 자체가 자녀의 놀이경험에 영향을 끼친다(남윤희, 김금주, 2013; Chudacoff, 2007; Fogle & Mendez, 2006). 그러나 일부 연구를 통해 드러났듯이 놀이 필요성과 유익성은 높게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자녀의 놀이를 비생산적이거나 무가치한 활동으로 인식하는 양면적인 심리를 갖는 등(박영애, 김리진, 2011) 실행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즉, 부모가 유아기 놀이의 가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부모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인식과 태도, 실행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김미나, 2013; 박영애, 김리진, 2011, 2012; 심성경, 이현순, 1985; 홍수경, 2010) 부모의 실제 실행 정도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유아의 놀이 권리 측면에서 요소별 인식과 실행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유아의 놀이 권리 측면에서 요소별 부모의 인식과 실행 정도를 확인하여 부모 상담 및 교육에 활용할 주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놀이 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놀이 권리에 대한 부모의 실행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의 놀이 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행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J시 지역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458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연구를 위한 도구는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설문지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유아의 놀이 권리는 성인의 도움으로 실행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유아의 놀이와 관련된 요소와 부모, 교사 등 성인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와 문헌을 기반으로 문항을 추출하였다. 유아는 혼자 놀이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놀이하는 것을 더 선호하며, 특히 친구와 함께하는 것을 더 놀이로 인식한다(원계선, 2016; 이재숙, 1999; Howard et al., 2006). 유아 교육기관의 놀이시간, 놀이공간, 영역별 놀이 인원수 제한규칙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원계선 등, 2013)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자유선택활동 놀이규칙이 자유로운 놀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가정에서의 놀이도구 구매와 제공 역시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

부모는 자녀가 교육적 성취에 초점을 두고 교육용 완구를 구매하게 되어(Elkind, 2011), 결과적으로 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무시한 놀이학습을 양산할 수 있다(Brooker & Woodhead, 2013). 부모의 유아 놀이에 대한 이해와 참여는 유아의 상상놀이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이숙재, 2007). 이에 더하여 현대사회는 안전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실외 놀이 기회가 매우 줄고 있다. 유아는 실외놀이를 더 놀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양옥승, 이정란, 나은숙, 2002; 원계선, 2016). 그러나 유아교사는 실외놀이의 중요성과 교육적 가치를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신동주, 2004; 유정선, 엄정애, 2004). 이상의 선행연구와 문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놀이 관련 권리는 시간, 공간, 놀잇감, 놀이친구 등을 선택하는 권리와 공동놀이자로서 부모의 참여, 놀이 시의 안전, 실외놀이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녀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관련 선행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력(김민영, 1996; 김정선, 2000; 이옥자, 1985), 부모의 성(김미나, 2013)을 변인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한편 자녀의 성을 변인으로 한 부모의 기대수준에 관한 연구(박남옥, 2003; 주동욱, 2004), 출생순위에 따른 양육 스타일의 차이(서진영, 이주연, 2013)나 자녀진로에 대한 기대차이(김병숙, 김경아, 2006)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밖에 자녀 양육 태도, 양육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대상자의 배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 정보 (N = 458)

변인	문항내용	빈도(명)	백분율(%)
성별	어머니	404	88.2
	아버지	54	11.8
연령	39세 이하	309	67.5
	40세 이상	149	32.5
자녀수	한 명	62	13.5
	두 명	280	61.1
	세 명	107	23.4
	네 명 이상	9	2.0
학력	고졸	24	5.2
	전문대졸	128	27.9
	대졸	247	53.9
	대학원졸	53	11.6
	기타	6	1.3
자녀 성별	여아	238	51.7
	남아	220	48.3
자녀 학년	만3세	102	22.3
	만4세	110	24.0
	만5세	117	25.5
	만6세(초등1학년)	129	28.2
출생 순위	첫째	234	51.1
	둘째	185	40.4
	셋째	35	7.6
	넷째	2	0.4
	기타	2	0.4
가족형태	부모-자녀 가정	445	97.2
	부-자녀 가정	3	0.7
	모-자녀 가정	3	0.7
	조부모 가정	2	0.4
	기타	5	1.1

경 변인으로 부모의 연령을 선정한 연구(송혜영, 김은숙, 마여실, 왕세진, 1996; 이랑, 2003)를 참고하여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 설문지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정보에 관련된 문항과 자녀의 놀이에 대한 인식 정도를 묻는 문항과 실제 실행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인식 문항과 실행 문항은 각각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설문지 개발 단계에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관련 내용 6문항, 놀이 인식과 실행 정도를 묻는 내용 각 10문항씩 총 26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를 유아교육 전문가와 현직

<표 2> 설문지 문항 구성내용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구성 내용 예시	
	인식	실행	인식(II영역)	실행(III영역)
1. 실외놀이	2	2	주기적인 야외놀이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기적인 야외놀이 활동을 한다.
2. 놀이안전	3	3	놀이감 구매 시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놀이감 구매 시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매한다.
3. 놀이시간	3	3	학원 등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원하면 놀이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원 등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원하면 놀이하도록 허용 한다.
4. 놀이공간	2	2	집안에 아이만의 놀이공간(놀이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집안에 아이만의 놀이공간(놀이방)이 있다.
5. 놀이친구	3	3	자녀가 놀이할 친구를 부모가 선택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놀이할 친구를 부모가(내가) 선택해 준다.
6. 놀이도구	6	6	놀잇감을 구매할 때 자녀가 원하는 것을 구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놀잇감을 구매할 때 자녀가 원하는 것을 구매한다.
7.공동놀이자	1	1	자녀가 함께 놀이하기를 원할 때 놀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함께 놀이하기를 원할 때 놀아 준다.
인구학적 정보	8		I영역 / 1-8	

유아교사 2인에게 의뢰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문항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족구성 형태를 변인으로 첨가할 것과 놀이 인식 및 실행 관련 내용의 하위 범주별로 문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 받았다. 이를 반영하여 일반적 정보 관련 내용 8문항, 인식과 실행 관련 내용 각 20문항의 총 48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그다음 단계로 부모 8인에게 예비설문을 시행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완성한 설문지를 다시 현직 유아교육과 교수 2인에게 의뢰하여 안면타당도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4이었으며,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표 2>와 같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설문지는 2015년 6월 10일 배포하여 2015년 7월까지 수집하였다.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479부로 회수율은 79.8%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21부를 제외하고 최종 458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연구대상 특성 중 부모의 연령은 원 설문지에는 ‘30세 미만’부터 ‘50세 이상’까지 4가지 범주로 나뉘었으나 자료의 분포를 고려하여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성,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며, scheffé 사후검증을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의 놀이 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

부모의 자녀 놀이 권리에 대한 하위 요인별 인식은 <표 3>과 같다. 가장 인식이 높은 요인은 놀이 안전에 대한 권리 인식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실외놀이, 공동놀이자, 놀이공간, 놀이친구 선택, 놀이도구, 놀이시간에 대한 권리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의 놀이 권리에 대한 인식의 연구 대상자 특성 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성별과, 연령, 학력에 따른 차이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녀 수, 자녀의 성,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하위요인별 부모의 자녀 놀이 권리 인식 (N = 458)

구분	놀이공간	놀이시간	놀이친구	놀이도구	실외놀이	놀이안전	공동놀이자
M	4.01	3.09	3.50	3.27	4.24	4.33	4.21
(SD)	(.67)	(.60)	(.55)	(.37)	(.59)	(.63)	(.82)

자녀의 놀이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모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놀이공간, 놀이시간, 공동놀이자 요인에서 부모의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놀이친구 선택, 놀이도구 선택, 실외놀이, 놀이안전 권리 요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놀이공간, 놀이시간, 공동놀이자 요인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인식을 보였다.

<표 4> 부모 성에 따른 자녀 놀이 권리 인식의 차이 (N = 458)

요인	성	n	M(SD)	t
놀이공간	여성	304	4.05(.64)	4.04***
	남성	54	3.67(.79)	
놀이시간	여성	304	3.11(.58)	2.08*
	남성	54	2.90(.73)	
공동놀이자	여성	304	4.24(.79)	2.15*
	남성	54	3.98(.96)	

* $p < .05$, *** $p < .001$.

부모의 연령에 따라 자녀 놀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t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39세 이하 집단이 40세 이상 집단보다 놀이공간과 놀이시간 요인에서 더 높은 인식을 보여 젊은 부모가 자녀의 놀이 권리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 연령에 따른 자녀 놀이 권리 인식의 차이 (N = 458)

요인	연령	n	M(SD)	t
놀이공간	39세 이하	309	4.07(.64)	2.74**
	40세 이상	149	3.88(.72)	
놀이시간	39세 이하	309	3.14(.59)	2.45*
	40세 이상	149	2.99(.62)	

* $p < .05$, ** $p < .01$.

〈표 6〉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 놀이 권리 인식의 차이 (N = 452)

하위요인	고졸 (n = 24)	초대졸 (n = 128)	대졸 (n = 247)	대학원 (n = 53)	F	사후검증 (scheffé)
	M(SD)	M(SD)	M(SD)	M(SD)		
놀이공간	3.52(.73)	3.89(.58)	4.08(.67)	4.18(.71)	8.14***	a < c, d
놀이시간	2.89(.44)	3.01(.54)	3.10(.59)	3.31(.79)	4.07**	a, b < d
놀이친구	3.64(.56)	3.57(.58)	3.46(.53)	3.46(.57)	1.78	
놀이도구	3.30(.28)	3.31(.38)	3.23(.35)	3.35(.45)	2.20	
실외놀이	4.00(.57)	4.17(.51)	4.27(.62)	4.42(.51)	4.01**	a < d
놀이안전	3.94(.77)	4.27(.56)	4.35(.68)	4.55(.52)	3.51*	nd
공동놀이자	4.25(.68)	4.26(.70)	4.14(.90)	4.40(.74)	1.66	
전체 값	25.72(2.08)	26.46(2.26)	26.63(2.78)	27.66(2.57)	3.96**	a, b < d

* $p < .05$, ** $p < .01$, *** $p < .001$.

주. a=고졸, b=초대졸, c=대졸, d=대학원졸

〈표 7〉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자녀 놀이 권리 인식의 차이 (N = 458)

하위요인	3세 (n = 102)	4세 (n = 110)	5세 (n = 117)	6세 (n = 129)	F	사후검증 (scheffé)
	M(SD)	M(SD)	M(SD)	M(SD)		
놀이공간	4.02(.65)	4.05(.70)	4.03(.68)	3.94(.66)	.67	
놀이시간	3.08(.54)	3.19(.63)	3.11(.62)	3.00(.59)	2.06	
놀이친구	3.38(.60)	3.60(.56)	3.58(.51)	3.45(.54)	4.03**	a < b
놀이도구	3.22(.39)	3.36(.37)	3.30(.38)	3.22(.34)	4.02**	a, d < b
실외놀이	4.19(.60)	4.36(.56)	4.26(.60)	4.16(.56)	2.61	
놀이안전	4.40(.58)	4.39(.61)	4.22(.63)	4.25(.65)	1.81	
공동놀이자	4.30(.82)	4.27(.81)	4.18(.81)	4.09(.83)	1.59	
전체 값	26.59(2.46)	27.24(2.69)	26.75(2.61)	26.11(2.58)	3.83*	b > d

* $p < .05$, ** $p < .01$.

주. a=3세, b=4세, c=5세, d=6세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 놀이 권리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타 학력을 표시한 6명을 제외한 452명을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전체적으로 고졸과 대학원 졸 집단, 초급대학 졸과 대학원 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분석에서 놀이공간 요인에서 고졸과 대졸 및 고졸과 대학원 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놀이시간 요인에서는 고졸과 대학원 졸, 초급대학 졸과 대학원 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실외놀이 요인에서 고졸과 대학원 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외의 요인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자녀 놀이 권리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 7>과 같이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놀이친구 요인에서는 만3세와 만4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놀이도구에서는 만3세와 만4세 집단 간 차이와 만 4세와 만 6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2. 유아의 놀이 권리에 대한 부모의 실행

부모의 자녀 놀이 권리 실행에 대한 하위 요인별 실행정도는 <표 8>과 같다. 실행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놀이안전 요인이었으며, 그 다음은 놀이공간, 실외놀이, 공동놀이자, 놀이친구 선택, 놀이도구, 놀이시간 순이었다. 자녀의 놀이 권리에 대한 실행의 연구 대상자 특성 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성별과, 연령, 학력에 따른 차이와 자녀의 연령,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녀 수, 자녀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하위요인별 부모의 자녀 놀이 권리 실행 (N = 458)

구분	놀이공간	놀이시간	놀이친구	놀이도구	실외놀이	놀이안전	공동놀이자
M	3.88	2.93	3.47	3.37	3.86	4.22	3.65
(SD)	(.75)	(.65)	(.56)	(.40)	(.70)	(.64)	(.83)

자녀 놀이 권리 실행 정도가 부모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t검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놀이공간 확보, 놀이친구 선택, 실외놀이 권리 요인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부모의 성에 따른 자녀 놀이 권리 실행의 차이 (N = 458)

요인	성	n	M(SD)	t
놀이공간	여성	404	3.93(.72)	4.31***
	남성	54	3.47(.79)	
놀이친구	여성	404	3.50(.56)	2.73**
	남성	54	3.28(.52)	
실외놀이	여성	404	3.89(.69)	2.49*
	남성	54	3.64(.72)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부모 연령에 따른 자녀 놀이 권리 실행의 차이 (N = 458)

요인	연령	n	M(SD)	t
놀이공간	39세 이하	309	3.95(.70)	2.89**
	40세 이상	149	3.73(.82)	
놀이안전	39세 이하	309	4.26(.62)	2.05*
	40세 이상	149	4.13(.67)	

* $p < .05$, ** $p < .01$.

<표 11>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놀이 권리 실행의 차이 (N = 452)

하위요인	고졸 (n = 24)	초대졸 (n = 128)	대졸 (n = 247)	대학원 (n = 53)	F	사후검증 (scheffé)
	M(SD)	M(SD)	M(SD)	M(SD)		
놀이공간	3.52(.63)	3.72(.71)	3.93(.76)	4.13(.69)	6.26***	a,b < d
놀이시간	2.79(.55)	2.91(.57)	2.92(.67)	3.05(.75)	1.05	
놀이친구	3.56(.57)	3.60(.55)	3.43(.54)	3.29(.59)	4.89**	b > d
놀이도구	3.31(.26)	3.41(.35)	3.35(.42)	3.35(.47)	.93	
실외놀이	3.75(.72)	3.80(.67)	3.87(.70)	4.04(.76)	1.71	
놀이안전	3.94(.77)	4.17(.55)	4.22(.67)	4.53(.48)	6.24***	a,b,c < d
공동놀이자	3.58(.88)	3.52(.73)	3.63(.83)	4.06(.89)	5.68**	b,c < d
전체 값	24.45(2.39)	25.13(2.52)	25.35(2.92)	26.45(2.89)	3.84*	a,b < d

* $p < .05$, ** $p < .01$, *** $p < .001$.

주. a=고졸, b=초대졸, c=대졸, d=대학원졸

부모의 연령에 따라 자녀 놀이 권리 실행이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t*검증 결과는 <표 10>과 같다. 놀이공간과 놀이안전 요인에서 39세 이하 집단이 40세 이상 집단보다 높은 실행을 보였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 놀이 권리 실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타 학력을 표시한 6명을 제외한 452명을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 자녀의 놀이 권리 실행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놀이공간 요인에서 대학원 졸 부모가 고졸, 초급대학 졸 부모집단보다 높은 실행을 보였다. 놀이친구 선택 권리 실행 요인에서 초급대학 졸 부모 집단이 대학원 졸 부모집단보다 높은 실행을 보였다. 놀이안전 요인에서는 대학원 졸 부모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은 실행을 보였다. 공동놀이자 실행도 대학원 졸 부모 집단이 초급대학 졸 부모 및 대졸 부모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 놀이 권리 실행의 차이는 <표 12>와 같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놀이공간 요인과 놀이시간 요인에서 만4세 부모가 만3세와 만6세 부모보다 놀이공간 확보에 대한 실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친구 요인에서는 만3세와

<표 12> 자녀 연령에 따른 자녀 놀이 권리 실행의 차이 (N = 458)

하위요인	3세	4세	5세	6세	F	사후검증 (scheffé)
	(n = 102)	(n = 110)	(n = 117)	(n = 129)		
	M(SD)	M(SD)	M(SD)	M(SD)		
놀이공간	3.70(.71)	4.07(.74)	3.96(.77)	3.78(.72)	5.71**	a, d < b
놀이시간	2.79(.66)	3.08(.68)	3.00(.61)	2.83(.60)	5.41**	a, d < b
놀이친구	3.27(.62)	3.58(.53)	3.60(.50)	3.42(.52)	8.82***	a < b, c
놀이도구	3.27(.43)	3.51(.38)	3.38(.42)	3.33(.36)	6.94***	a, d < b
실외놀이	3.66(.72)	4.05(.71)	3.91(.69)	3.82(.63)	6.00**	a < b
놀이안전	4.24(.58)	4.39(.61)	4.22(.63)	4.07(.69)	4.96**	b > d
공동놀이자	3.62(.86)	3.69(.86)	3.79(.79)	3.51(.78)	2.57	
전체 값	24.54(2.68)	26.36(2.78)	25.86(2.66)	24.76(2.74)	11.51***	a, d < b, c

** p < .01, *** p < .001.

주. a=3세, b=4세, c=5세, d=6세

<표 13> 자녀의 성에 따른 자녀 놀이 권리 실행의 차이 (N = 458)

요인	성	n	M(SD)	t
놀이시간	여아	238	2.86(.64)	2.23*
	남아	220	3.00(.65)	
실외놀이	여아	238	3.79(.71)	2.29*
	남아	220	3.94(.68)	
공동놀이자	여아	238	3.57(.78)	2.14*
	남아	220	3.74(.87)	
전체 값	여아	238	25.03(2.76)	2.76**
	남아	220	25.75(2.82)	

* p < .05, ** p < .01.

비교하여 만 4세와 만 5세 부모가 놀이친구에 대한 선택권을 더 잘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도구 선택에 있어 만 3세 및 만 6세보다 4세에게 선택권을 더욱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놀이 권리에서도 만 4세가 만 3세보다 더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안전에 대한 권리 실행은 만 6세보다 만 4세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성에 따른 부모의 자녀 놀이 권리 실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는 놀이시간, 실외놀이, 공동놀이자 권리 실행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아의 경우가 여아의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놀이 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행의 차이

자녀의 놀이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시행하였으

<표 14> 자녀의 놀이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의 차이 (N = 458)

요인	대응	M(SD)	t
놀이공간	인식	4.00(.67)	4.94***
	실행	3.88(.75)	
놀이시간	인식	3.09(.60)	6.88***
	실행	2.93(.65)	
놀이친구	인식	3.50(.55)	1.40
	실행	3.47(.56)	
놀이도구	인식	3.27(.37)	-6.52***
	실행	3.37(.40)	
실외놀이	인식	4.24(.59)	13.75***
	실행	3.86(.70)	
놀이안전	인식	4.33(.63)	5.43***
	실행	4.22(.64)	
공동놀이자	인식	4.21(.82)	12.73***
	실행	3.65(.83)	
전체 값	인식	26.65(2.61)	14.34***
	실행	25.37(2.81)	

*** $p < .001$.

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부모의 자녀 놀이에 대한 인식 정도가 실행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친구 요인을 제외한 모든 하위 요인에서도 인식과 실행 간 차이를 보였다. 놀이공간, 놀이시간, 실외놀이, 놀이안전, 공동놀이자 요인에서 인식 정도가 실행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도구 요인에서는 실행이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놀이 권리의 인식과 실행 차이에 대한 연구 대상자 특성 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연령(학년) 변인 외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자녀 놀이 권리 인식과 실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별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연령에 따라 하위요인별 인식과 실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놀이공간 요인에서는 만 3세 연령에서만 인식과 실행의 차이가 나타나 인식에 비교하여 실행이 낮았다.

놀이시간 요인에서는 전체 연령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인식에 비교하여 실행이 낮았다. 놀이도구 요인에서는 만3세 연령을 제외한 전체연령에서 인식과 실행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인식에 비교하여 실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친구 요인에서는 만3세 연령에서만 인식과 실행 간의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는데, 인식에 비교하여 실행이 낮았다. 놀이도구 요인에서는 만3세를 제외한 전체 연령에서 인식과 실행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인식에 비교하여 실행이 높았다. 실외놀이 요인에서는 전체 연령에서 인식과 실행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인식에 비교하여 실행이 낮게 나타났다.

〈표 15〉 유아 연령별 부모의 자녀 놀이 권리 인식과 실행의 차이 (N = 458)

요인	연령	n	대응	M(SD)	t
놀이공간	3	102	인식	4.02(.65)	5.49***
			실행	3.70(.71)	
	4	110	인식	4.05(.70)	-.33
			실행	4.07(.74)	
	5	117	인식	4.03(.68)	1.53
			실행	3.96(.77)	
	6	129	인식	3.94(.66)	3.30**
			실행	3.78(.72)	
놀이시간	3	102	인식	3.08(.54)	5.11***
			실행	2.79(.66)	
	4	110	인식	3.19(.63)	2.50*
			실행	3.08(.68)	
	5	117	인식	3.11(.62)	2.31*
			실행	3.00(.61)	
	6	129	인식	3.00(.59)	3.72***
			실행	2.83(.60)	
놀이친구	3	102	인식	3.38(.60)	2.07*
			실행	3.27(.62)	
	4	110	인식	3.60(.56)	.58
			실행	3.58(.53)	
	5	117	인식	3.58(.51)	-.53
			실행	3.60(.50)	
	6	129	인식	3.45(.54)	.76
			실행	3.42(.52)	
놀이도구	3	102	인식	3.22(.39)	-1.32
			실행	3.27(.43)	
	4	110	인식	3.36(.37)	-4.69***
			실행	3.51(.38)	
	5	117	인식	3.30(.38)	-2.58*
			실행	3.38(.42)	
	6	129	인식	3.22(.34)	-5.10***
			실행	3.33(.36)	
실외놀이	3	102	인식	4.19(.60)	7.15***
			실행	3.66(.72)	
	4	110	인식	4.36(.56)	5.90***
			실행	4.05(.71)	
	5	117	인식	4.26(.60)	6.94***
			실행	3.91(.69)	
	6	129	인식	4.16(.56)	7.85***
			실행	3.82(.63)	

〈표 15〉 계속

요인	연령	<i>n</i>	대응	<i>M(SD)</i>	<i>t</i>
놀이안전	3	102	인식	4.40(.58)	3.51**
			실행	4.24(.58)	
	4	110	인식	4.41(.66)	.46
			실행	4.39(.61)	
	5	117	인식	4.30(.62)	2.16*
			실행	4.22(.63)	
6	129	인식	4.25(.65)	4.45***	
		실행	4.07(.69)		
공동놀이자	3	102	인식	4.30(.82)	6.31***
			실행	3.62(.86)	
	4	110	인식	4.27(.81)	6.76***
			실행	3.69(.86)	
	5	117	인식	4.18(.81)	4.49***
			실행	3.79(.79)	
6	129	인식	4.09(.83)	8.28***	
		실행	3.51(.78)		
전체 값	3	102	인식	26.59(2.46)	8.76***
			실행	24.54(2.68)	
	4	110	인식	27.24(2.69)	5.58***
			실행	26.36(2.78)	
	5	117	인식	26.75(2.61)	5.55***
			실행	25.86(2.66)	
6	129	인식	26.11(2.58)	9.29***	
		실행	24.76(2.74)		

* $p < .05$, ** $p < .01$, *** $p < .001$.

놀이 안전 요인에서는 만 4세를 제외한 전체 연령에서 인식과 실행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인식과 비교하여 실행이 낮았다. 공동놀이자 요인에서는 전체 연령에서 인식과 실행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인식과 비교하여 실행이 낮았다.

I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 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정도와 실행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육 현장에 교육적 시사점을 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유아의 놀이 권리에 대한 부모의 실행이 인식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 분

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놀이 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가장 인식이 높은 요인은 놀이안전이었으며, 실외놀이, 공동놀이자, 놀이공간, 놀이친구 선택, 놀이도구, 놀이시간에 대한 권리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의 성에 따른 차이는 놀이공간, 놀이시간, 공동놀이자 요인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고, 나머지 요인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부모교육 등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자를 어머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어머니가 좀 더 유아기 교육과 양육에 관한 정보에 민감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부모의 연령에 따른 놀이인식의 차이에서는 놀이공간과 놀이시간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39세 이하 집단이 40세 이상 집단보다 더 높은 인식을 보였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에서는 고졸이나 초급대학 졸보다 대학원을 졸업한 부모의 놀이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 수준이 부모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인식 차이는 놀이친구 요인에서 만3세와 만4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놀이도구 요인에서 만 3세와 만 4세, 그리고 만 4세와 만 6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만 3세와 비교하여 만 4세 자녀에게 놀이친구 선택권을 더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놀이도구 선택에서는 만 3세와 만 6세보다 만 4세에게 선택권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가 인식하기에 만 3세 자녀는 올바른 선택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이 만 4세에 이르면 자녀의 자율권을 신장하려는 이유로 선택의 권리를 좀 더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만 5세의 선택권을 낮게 인식하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학습에 초점을 두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 자녀의 놀이 권리 실행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놀이안전 요인이었으며, 그다음은 놀이공간, 실외놀이, 공동놀이자, 놀이친구 선택, 놀이도구, 놀이시간 순이었다.

부모의 성에 따른 자녀의 놀이 권리 실행 정도는 놀이공간 요인, 놀이친구 요인, 실외놀이 요인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세 요인 모두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부모의 연령에 따른 놀이 권리 실행의 정도는 놀이공간 요인과 놀이안전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은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부모가 나이든 부모에 비교하여 자녀가 놀이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간을 허용하고 놀이안전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놀이 권리 실행 정도는 대학원 졸 부모가 고졸 및 초급대학 졸 부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 권리 인식과 같은 결과이며, 학력이 높은 경우 다양한 유아교육 및 양육 관련 전문지식에 접근하고자 더 많은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보에 기초하여 실행하고자 더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자녀 놀이 권리 실행 차이는 전체적으로 3세와 6세보다 4세와 5세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3세는 연령이 어려 놀이친구, 놀이도구 등을 선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만 6세는 부모가 학업에 좀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놀이공간, 시간 등에 대

해 개입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자녀의 성에 따른 부모의 자녀 놀이 권리 실행은 놀이시간, 실외놀이, 공동놀이자 요인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들에게 더 많은 놀이시간, 실외놀이 기회, 공동놀이자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성에 따른 부모의 놀이 기회 부여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부모가 남아에게 더 많은 놀이시간을 확보해 주고, 실외놀이 기회와 부모가 함께 놀이하는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은 남아에게 활동적인 놀이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거나, 더 높은 성취 기대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뿐이다. 이러한 차이가 본 연구 대상에게서만 나타난 결과인지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 수행과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자녀 놀이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하위 요인에서 인식보다 실행 정도가 낮았다. 그러나 놀이도구 요인에서는 실행이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놀이친구 요인에서는 인식과 실행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라 하위요인별 인식과 실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놀이공간 요인에서는 만 3세 연령과 만 6세 연령에서만 인식과 실행의 차이가 나타나 인식에 비교하여 실행이 낮았다. 놀이시간 요인에서는 전체 연령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인식에 비교하여 실행이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김미나, 2013; 박영애, 김리진, 2012; 차유미, 이진희, 2015; 최현희, 2016)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는 자녀 놀이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제 놀이시간 제공, 놀이친구의 자유로운 선택 등의 실행에 인색해질 수 있다.

2. 논의 및 제언

놀이는 유아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놀이란 놀이 주체자의 인식으로 놀이 여부가 정의된다. 유아 주도적 선택으로 계획, 실행, 평가된 놀이 활동의 교육적 가치가 강력하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 인권 보장에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유아의 놀이 권리는 잘 보장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로 나타난 주요 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는 자녀의 놀이 권리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실행 정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니세프가 분류한 아동권리 4대 유형을 하위변인으로 하여 부모의 인식과 실행의 차이를 알아본 이명순의 선행연구(2012)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 부모는 자녀의 놀이에 있어 시간, 공간, 도구, 친구 등에 대한 자율적 선택과 안전 확보, 실외놀이 기회, 놀이자로서의 부모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는 알고 있는 만큼 실행하지는 못했다. 발달상의 특성 때문에 의존성을 지니고 있는 유아이기 때문에 부모가 대리할 역할이 있다. 자녀의 권리 행사 역시 부모가 대리해야 할 역할이 있다. 아직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믿음 하에 이루어지는 성인의 선택이 유아의 놀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Ginsburg(2007)의 우려대로 부모의 선택에 의한 과잉 구조화된 놀이를 제안하고 자녀의 자율적 놀이 권리를 제한하여 진정한 의미의 놀이가 결핍된다면

아동발달과 적응상의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Bekoff와 Crain(2011)은 유아주도의 자유 놀이 기회 제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 2, 30년간 교사가 구조화하는 활동이 늘고 있으며, 유아주도 게임 활동 및 자유놀이, 환상놀이가 줄고 있다. Miller와 Almon(2009)은 넓은 놀이공간, 비구조화된 놀이와 탐색시간, 미술, 음악, 사회적 기술 연습하기와 배우기를 즐기는 법 배우기 등의 성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전 유치원의 모습이 거의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놀이시간의 축소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학업성취 압력은 비디오게임, 텔레비전 시청 등과 함께 아이들을 실내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고 특히 실외놀이는 더 힘들어졌다. 혹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보호’, ‘대리자의 역할’이라는 핑계로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간 이루어져 온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강연회나 워크숍 형태의 부모 교육, 한 학기 1, 2회 정도 시행하는 부모상담, 그리고 새 학기 시작에 시행하는 부모오리엔테이션이 있다(황은실, 2015). 실제 유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모교육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조미상, 2003), 학부모의 자원봉사, 가정통신, 가정과 연계하여 발송되는 유인물, 참여수업, 학부모 모임, 상담, 강연회, 참관수업이 있다. 부모 대상의 강연회 내용은 일반적으로 유아의 바른 생활, 발달에 대한 지식과 지도방법, 자녀의 건강과 안전지도, 양육 태도, 문제행동지도 등이었다(정운정, 2006). 놀이가 유아의 타고난 욕구라면, 자유로운 놀이 제한은 마치 수면, 수분 섭취와 같은 욕구를 억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Crain, 2010). 따라서 부모의 자녀 놀이 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실행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인식과 실행의 틈을 좁힐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 결과 독특하게도 자녀의 놀이도구 선택 요인과 관련하여 부모의 인식보다 실행이 높았다. 부모가 놀이도구 선택의 권한을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수준보다 실행하는 수준이 더 높았다는 것은 부모가 놀이도구 선택을 허용하는 실행에 비교하여 더 통제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는 교육적인 놀이를 위해 놀이도구를 부모가 선택해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Elkind(2011)가 언급하였듯이, 부모는 자녀가 교육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용 완구를 구매하지만 이러한 상품은 실제 아이들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부모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에 충실한 상태로 제작되고 홍보된다. 역설적으로 놀이가 학습의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은 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무시하고 성인이 제시하는 목적에 초점을 둔 놀이학습을 양산하게 되고(Brooker & Woodhead, 2013) 결과적으로 유아 주도의 진정한 의미의 놀이를 침해할 수 있다.

셋째, 일부 하위요인에서 자녀 성에 따른 권리 실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표 13>에서와 같이, 자녀의 성에 따른 실행의 차이가 놀이시간, 실외놀이, 공동놀이자 실행에서 나타났으며, 모두 남아의 경우가 여아의 경우보다 더 높았다. 즉, 부모는 자녀의 성에 따라 놀이 권리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정도로 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놀이시간의 선택, 실외놀이 기회, 부모가 함께 놀이할 기회에서 남아에게 좀 더 자유로운 선택 권한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본 연구결과를 명확히 뒷받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대상 연령을 달리한 일부 연구에서 부모는 자녀의 성에 따라 학업성취나 진로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고 하였다. 박남옥(2003)은 자녀의 성에 따른 부모의 기대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주동욱(2004)도 여아에 비교하여 남아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점수가 높다고 하였으며, 김병숙과 김경아(2006)는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의 진로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유아의 놀이 권리 실행을 논의하려면 유니세프의 아동 권리 유형 중 보호권에 대한 보장과 참여권에 대한 보장의 상충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명순과 이은주(2013)의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인식수준에서는 보호권이 가장 높았고, 실행수준에서는 생존권이 가장 높았다. 때로는 자녀를 보호하려는 부모의 행위가 자녀의 자유로운 선택 의지에 의한 참여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보호적 행위는 유아의 자유 선택 의지를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떠한 정도가 적절한 보호인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없다. 유아의 선택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유아에게 더 많은 선택 권리 실행을 허용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유아의 놀이 권리 실행을 조력할 성인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부모교육 시 유아의 놀이 권리 실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인식과 실행 정도를 문도록 구조화하여 설문 조사하였기 때문에 설문 응답 내용이 응답자의 실제 실행 정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임의 표집했기 때문으로 부와 모의 표본 수의 차이가 컸다는 점 역시 연구의 제한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아 놀이 권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변인을 연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즉 시간, 공간, 놀이감, 놀이친구 등을 선택하는 권리와 공동놀이자로서 부모의 참여, 놀이 시의 안전, 실외놀이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 부모의 인식과 실행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이었던 설문조사 방법이 아닌 부모-자녀 일상적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연구, 비형식적 인터뷰 등을 통해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활용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그리고 자녀의 성에 따른 부모의 실행이 일부 하위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던 본 연구 결과에 관한 심도 있는 관련 후속 연구를 통해 부모의 자녀 성에 따른 기대와 양육 태도의 차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상기하였듯이, 아동권리의 보호권과 참여권의 상충적 요소와 관련하여 유아 놀이 권리 실행을 위한 적절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아의 연령에 따른 선택능력의 발달 정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영 (2013). 숲유치원의 발전과 유아의 신체활동. **한국유아체육학회지**, 14(2), 45-55.
 고여훈 (2009).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의 양상과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의미 분석. 이화여자대학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여훈 (2013). 하늘반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 특징과 교사의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숙 (2003). 고누전통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기초 인지능력습득에 미치는 효과. 가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현, 임희진, 장근영, 김혜영, 황옥경 (2011). **제 5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김미나 (2013). 영유아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참여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등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정책보고서 2013-92). 서울: 보건복지부
- 김민영 (1996). 유아기 부모의 사회 계층별 놀이인식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숙, 김경아 (2006). 성 및 출생순위가 부모의 자녀 진로기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9**(1), 1-24.
- 김성재 (2011). 잡기놀이 중심의 거친 신체놀이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6**(1), 361-387.
- 김소양 (1989). 유치원 교사, 부모, 유아의 놀이 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자, 김희태 (2010). 전통놀이 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4**(4), 375-400.
- 김영희 (2005). 전통놀이 활동이 유아의 전통놀이에 대한 인식과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래 (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 교육과학사.
- 김정선 (2000). 유아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 (2012). 자연친화적 실외활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실태파악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1998).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의 놀이 인식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상미, 김혜순 (2011). 신체놀이 활동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유아체육학회지**, **12**(1), 7-25.
- 남윤희, 김금주 (2013).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창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3**(1), 61-80.
- 노영신 (2004). 유아기 자녀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조사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혜린 (2013).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
- 문혁준, 홍현재 (201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2(4), 245-274.
- 박남옥 (2003). 부모-자녀관계와 친구관계 및 자아개념간의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미 (2013). 신체접촉 중심의 전래놀이 활동이 유아-교사관계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 김리진 (2011). 유아기 및 아동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관련 인식 기초조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2), 37-56.
- 박영애, 김리진 (2012).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의 놀이현황 및 지원 기대 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2), 283-300.
- 박은아 (2003). 유아놀이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태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 (2014). 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욱, 이성희 (2012). 유아를 위한 신체접촉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 자아개념, 정서지능, 친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325-349.
- 박혜정 (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다중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2(2), 1-22.
- 박효정 (2010). 놀이이론의 교육적 함의: D. Elkind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숙 (2003). 유치원 교사 및 부모의 유아 놀이 인식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35, 221-240.
- 서진영, 이주연 (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및 양육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 369-389.
- 손남숙, 이숙희 (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만4세-6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2), 49-77.
- 송지홍, 최경란 (2015). 조형놀이를 통한 유아의 감성발달 특성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6(1), 269-286.
- 송혜영, 김은숙, 마여실, 왕세진 (1996). 자녀가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 및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정관리연구**, 15, 169-185.
- 신동주 (2004). 유치원의 실외놀이활동 실태 및 교사의 실외놀이에 대한 인식. **유아교육연구**, 24(6), 299-324.
- 신말예 (1994). 유아기 부모의 놀이 인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연, 김정현, 정이정 (2012). “숲유치원 접근”의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 유아의 기초체력 및 행복감 비교. **유아교육학논집**, 16(6), 5-25.
- 심성경, 이현순 (1985). 유아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일 연구. **교육연구**, -(4), 83-122.

- 안숙연 (2011). 유아기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놀이 인식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옥승, 이정란, 나은숙 (2002). 유아의 관점에서 본 자유놀이. **열린유아교육연구**, 7(1), 143-165.
- 원계선 (2016). 교사와 또래 존재 여부 및 활동 공간에 따른 유아의 유치원 활동에 대한 놀이 인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1), 381-404.
- 원계선, 박서연, 장수지, 정유나, 윤미영, 이지연 등 (2013). 어린이집 자유놀이의 제한 규칙 운영 실태와 교사의 인식. **육아정책연구**, 7(2), 46-62.
- 유정선, 엄정애 (2004). 서울시 사립유치원의 실외놀이 실태와 교사의 인식. **교육과학연구**, 35(1), 39-57.
- 이랑 (2003). 자녀 양육 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순 (2012). 아동권리에 대한 어린이집 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순, 이은주 (2013). 아동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이행수준. **아동과 권리**, 17(2), 265-284.
- 이수민 (2011). 아동권리의 헌법적 보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재 (2007).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이영녀 (2015). 영아 주도의 놀이중심 숲산책프로그램이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코칭연구**, 8(1), 79-101.
- 이옥자 (1985). 사회계층별 유아놀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인식 및 역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진, 문무경, 김문정, 양시내 (2009). 유아학원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보고 2009-09). 서울: 유아정책연구소.
- 이재숙 (1999). 유아교육기관 유아와 초등학교 아동의 놀이 인식조사. 배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희, 조은진, 김송이 (2009). 놀이. **아동학회지**, 30(6), 309-321.
- 임재택, 하정연, 이소영 (2013). 숲에서 유아들이 경험하는 놀이 탐색. **유아교육연구**, 33(2), 343-367.
- 임현주 (2014). 영아의 발달 상, 하위 집단별 영아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1), 225-247.
- 장혜순 (2008). **유아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정윤정 (2006).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유형 및 내용분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상 (2003). 유치원에서의 부모교육 유형 및 내용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연, 박은혜 (2014). 유아의 그림을 통해 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놀이에 대한 이미지. **유아교**

육학논집, 18(2), 35-57.

- 주동욱 (2004). 부모와 교사의 기대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보라, 김은심, 유지안 (2015). 바깥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와 리더십 및 자기조절력과의 관계. **한국교육문제연구, 33(4)**, 123-142.
- 주정호 (2014).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태도가 유아의 다중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실천학회지, 6(2)**, 30-54.
- 차유미, 이진희 (2015). 유아 바깥놀이에 대한 어머니들의 관점. **육아지원연구, 10(3)**, 85-108.
- 최현희 (2016). 유아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진 (2009).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 및 놀이신념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수경 (2010). 유아의 놀이에 관한 부모의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옥경, 한유미, 김정화, 양효현, 서예지, 박진우 등 (2014). 한국 아동의 놀 권리 현주소와 대안 연구 보고서.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황은실 (2015). 어린이집 부모참여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인영 (2004). 유치원 학부모의 놀이 인식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koff, M., & Crain, W. (2011). A crime against children. *Encounter: Education for Meaning and Social Justice, 24(4)*, 12-14.
- Brooker, L., & Woodhead, M. (2013). *The right to play*. Aberystwyth: Cambrian Printers.
- Chudacoff, H. P. (2007). *Children at play: An American history*. NY: University Press.
- Crain, W. (2010). Is children's play innate? *Encounter: Education for Meaning and Social Justice, 21(3)*, 8-10.
- Elkind, D. (2011). The power of play, **놀이의 힘**(이주혜 옮김). 서울: 한스미디어(원판 2007).
- Fogle, L. M., & Mendez, J. L. (2006). Assessing the play beliefs of American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4)*, 507-518.
- Ginsburg, K. R. (2007). The importance of play in promoting healthy child development and maintaining strong parent-child bond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19(1)*, 182-191.
- Goodnow, J. J., & Collins, A. W. (1990). *Development according to parents: The nativ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parents ideas*. Hillsdale, NJ: Erlbaum.
- Landreth, G. L. (1991). *Play therapy: The art of relationship*. Muncie, IN: Accelerated Development Press.
- Lester, S., & Russell, W. (2010). *Children's right to play; An examination of the importance of play in the lives of children worldwide*. The Hague, The Netherlands: Bernard van Leer Foundation.
- Howard, J., Jenvey, V., & Hill, C. (2006). Children's categorization of play and learning based on social contex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6(3-4)*, 379-393.

- Miller, E., & Almon, J. (2009). *Crisis in the kindergarten: Why children need to play in school*. MI: Alliance for Childhood.
- Russo, H. L. (2009). Play, peer relationships, and academic learning: Exploring the views of teachers an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USA.
- Zigler, E. F., & Bishop-Josef, S. J. (2006). The cognitive child versus the whole child: lessons from 40 years of Head Start. In Singer, D. G., Golinkoff, R. M. & Hirsh-Pasek, K. (Eds.), *Play-learning: How play motivates and enhances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emotional growth* (pp. 15-35). NY: Oxford University Press.

논문투고: 16.10.15
수정원고접수: 17.12.20
최종게재결정: 17.02.06